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지 애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지도교수 김 석 호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지 애

김지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7 월

위 원 장 김 홍 중 (인)

부위원장 권 현 지 (인)

위 원 김 석 호 (인)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지애

국문 초록

삼포, 오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경제 불경기, 취업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세대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청년의 포기는 심도 있는 탐구를 요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청년세대를 N포라는 단일한 특성을 띠는 집단으로 이해하거나, 청년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을 포기로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N포세대, 금수저와 흙수저 등과 같은 기존 설명 논리를 따라 가다보면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포기 했다'와 '포기하지 않았다'와 같은 청년세대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논의에 다다르게 된다. 청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포기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포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그 초점이 포기 그 자체가 가진 내용보다는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포기의 여부만을 살필 수 있는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가 모두 같은 포기로 치부되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깊게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을 특징짓는 담론 중 하나인 ‘포기 담론’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기의 내용과 모습들을 살피는데 있다. 즉 현재 한국 사회 청년세대의 포기에 실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2016년 한국 청년 가치관 서베이를 활용하였다. 포기는 응답자들이 판단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의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를 대비시켜 측정하였다. 포기의 유형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효과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소유층 집단을 포함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그리고 유예형 포기 등 다섯 가지 포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소유층 집단을 제외하면 포기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포기 유형들이 발견된 셈인데, 불확신불안형은 전체 표본의 27.36%, 현실주의형은 19.92%, 자포자기형은 13.24%, 유예형 포기는 8.70% 등을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소유층 집단은 전체 표본의 30.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결정 짓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에 있어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회적 이동가능성 인식이 청년들의 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더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청년, 세대, 포기의 다양성,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잠재집단분석

학 번: 2015-22289

목 차

1. 서론	1
2. 이론적 논의	4
2.1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청년세대: ‘N포세대로서의 청년세대’	5
2.2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포기	8
2.3 본 연구의 ‘포기’의 조작적 정의: 포기의 다양성.....	14
2.4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사회- 경제적 배경과 사회이동성 인식	16
2.5 연구문제	21
3. 연구방법	22
3.1 연구 대상	22
3.2 연구 자료	23
3.3 사용변수의 정의	25
3.4 분석 방법	30
4. 분석결과	31
4.1 포기의 잠재유형	31

4.2 포기 유형의 특징	37
4.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포기 유형의 결정요소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43
5. 결론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6

표 목 차

<표 1> 사용 변수들의 기술통계	28
<표 2> 잠재유형의 모형적합성	32
<표 3> 각 포기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특성	38
<표 4> 포기의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5

그림 목 차

<그림 1> 포기의 잠재집단 분석결과	32
<그림 2> 주관적 계층의식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52
<그림 3>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54

1. 서론

사회과학자들은 특정 시대 신조어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 환경에 처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N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2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신조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포세대는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취업시장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조어라고 평가받고 있다(중앙일보, 2015). 이전에는 당연히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N포세대는 불경기,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더 나아가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우리 사회의 20-30대 청년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또는 포기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88만원세대, 삼포세대와 같이 현재 청년 세대를 특징짓는 용어가 사실 그들 내부로부터 표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언론과 학계가 청년 집단을 대상화하여 청년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인상을 외부의 시선으로 정리한 결과라는 지적(오찬호, 2010)을 염두에 둘 때,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가 행위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구해보는 것은 중요하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대학생 및 취업 커뮤니티에서 136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10명 중 7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N포세대라고 여긴다(N포세대 무엇을 포기했나, 2015). 반면, 청년들은 포기했다기보다는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즉 청년세대의 문제는 개

인의 자기계발이나 달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스스로를 N포세대로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있다(이은희 외, 2016; 서민, 2015). 즉 청년세대 내부에 포기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미디어와 단편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에세이나 문화연구가 표상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속 포기하는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 ‘N포세대로서의 청년’ 등과 같은 청년들의 포기에 대한 세대 단위의 단순화와는 달리 청년들의 다양한 포기가 실재(實在)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실재하는 포기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의 포기를 세대적 특성으로 단순화하는 통상적인 담론과 달리, 포기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보다 심도 있는 탐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포기의 다양성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현재 청년들의 포기는 세대주의적 관점에 의해 N포의 특성을 띠는 단일한 내용의 포기로,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잘사는 이들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고 못사는 이들은 다 포기한다는 두 가지 내용의 포기로만 이해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논의는 초점이 포기 그 자체의 내용보다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포기 자체가 가진 성격에 대한 이해가 먼저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무엇에 의해’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어떤 포기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등 포기

의 하위 항목들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측정하고자 하며,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키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유형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기의 다양한 내용과 모습을 확인한 후, 포기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조건 또는 원인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이 주목해온 청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포기의 핵심적 결정요인인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적 이동 가능성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는 청년들의 포기가 객관적 조건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따라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청년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포기를 결정하거나 포기에 내몰리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본 연구가 특히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포기에 대해 가진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는 본질적으로 전망적prospective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포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도하는 N포세대로 통칭되는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한 내용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해보는 작업은 지금까지 획일적인 청년담론에 간혀 있었던 청년의 실제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청년들의 희망과 포기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경향성을 띠고 있다. 우선 세대적 속성에 천착하여 청년세대의 단일성 또는 동질성을 전제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동질성이 곧 '모두 다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청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청년들 모두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하임(1952)의 세대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전자는 청년층의 '실제 세대'에 주목한 연구들로, 후자는 청년층의 '세대단위들'에 주목한 연구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세대로서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연구들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청년들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청년세대를 집합적 'N포세대'로 그린다. 이에 반해 세대단위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개 사회경제적 여건을 청년세대 내 이질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목함으로써 동시대 집단으로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실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래에서는 청년세대의 포기를 놓고 존재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청년세대 - ‘N포세대로서의 청년세대’

청년세대를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하며 냉혹한 사회 구조를 강조하면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세대와 차별성을 떨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본다.

청년들의 포기를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구조중심적인 접근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대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만하임에 따르면, 출생 시점의 차이는 사회적, 역사적 구조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세대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의 분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사고, 감정, 가치관, 행위 양식의 차이를 가져온다(Mannheim, 1952). 이 과정에서 만하임은 단지 사회적 위치를 공유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공동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실체세대’가 형성되며, 세대 위치가 실체세대로 발전될 가능성은 안정된 사회보다는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서 높다. 한 세대가 가지는 가치관 혹은 의식구조가 이전 세대의 그것들로부터 나타내는 차이는 이들로 하여금 집합적, 공통적 인식을 갖도록 이끄는 사회구조의 변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구조적 변동이 곧 만하임이 주장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계층이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열린 사회를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청

년세대는 계층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닫힌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신우진 외, 2015), 기회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이 청년층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동그라미재단, 2015; 2016). 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및 교육, 주거, 노후, 건강이라는 사회복지의 5대 불안요소(유혜승 외, 2015)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동일한 구조를 경험하지 않은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로지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생존주의 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김홍중, 2015).

이처럼 구조적 변동이 세대 내에서는 동질성을, 세대 간에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및 삶의 방식이나 지향, 의식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 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변동이 또 하나의 '실제세대'를 형성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N포세대와 같이 '실제세대'로서, '불안'과 '포기'와 같은 그 세대의 집합적 인식을 주장하고자 하는 세대론은 구조중심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관, 의례 등을 묘사하는 데 있어 세대론은 묘사 행위의 주체와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즉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재홍, 2001). 예컨대 삼포세대론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를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들은 N포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담론은 대개 청년세대를 신빈곤층으로 파악하며(우석훈·박권일, 2006),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들을 조명한다. 즉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률과 취업난(문은영, 2013), 저임금 문

제(이태형, 2015), 대물림되는 빈곤과 무한경쟁, 사회 양극화(이기훈, 2012)와 같이 청년들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 지난 몇 십 년간 일어난 구조적 변동에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혼돈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포기한다. 세대주의적 관점은 청년들이 높은 생활비와 과도한 교육 및 양육비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며, 기약 없는 취업준비와 만만치 않은 취업 준비비용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그러나 이 같은 세대주의적 관점의 담론은 청년들 당사자의 처지와 생각,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 구조적 맥락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구조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년세대에게 ‘N포’가 필연적이며 이것이 동질적인 세대적 특성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 접근은 구조가 가지는 인과적 설명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구조 속 ‘행위자로서의 청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행위자 없는 구조structure without agency’의 시각에서 청년세대의 포기를 다룬다.¹⁾

1) 공통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주변화 시킨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부의 동질성이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세대주의적인 세대담론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박재홍(2009)은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 기획사, 그리고 정치권이 세대담론들을 생산하는 핵심 주체라고 지적한다. 대중매체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과 광고 기획사는 마케팅 대상의 차별화를 통해 판매를 높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각각 세대담론을 생산시킨다. 이러한 생산 과정을 염두에 둘 때, N포세대와 같은 세대담론들이 실제로 그것이 지칭하고자 하는 세대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정말 N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즉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구조 속의 행위자들agency within structure’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행위자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각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고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에 따라 구조의 영향력에 수용보다는 저항을 택하며, 때로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산하기 때문이다(Elder, 1974). 간단히 말해,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를 사회 구조에 기대어 논하는 것은 현상의 한 측면만을 과장하여 불충분한 결론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2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포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청년들의 포기를 이해하는 관점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시각은 같은 세대 위치를 공유하더라도 세대 구성원의 계층, 젠더와 같이 다른 사회적 분절선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이 시각은 N포세대와 같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이 청년세대의 포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의 포기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리라

주장한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신들의 현재의 삶,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확신, 그리고 계획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박기남, 2011; 정수남 외, 2012; 김영·황정미, 2013; 신광영·문수연, 2012; 김사과, 2010; 김영미, 2016; 동그라미재단, 2016;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동그라미재단, 2016). 이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이들의 삶의 모습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 박기남(2011)은 가족자원이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강조한다. 김영과 황정미(2013)는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가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면서 미래 진로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하층 청년들의 열악한 삶의 여건과 조건을 다룬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면서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고(박기남, 2011),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스펙 개발에 투자하는 중상층 이상의 청년들(신광영·문수연, 2012)의 삶의 모습과 대조된다. 또한 스펙 개발에 투자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직을 유예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상층 청년들에 반해 하층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김영·황정미, 2013). 그러나 한번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만큼 분절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이들은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정한 일자리 이어 붙이기”식의 취업을 지속하게 된다(김영·황정미, 2013: 228). 타고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현저하게 다른 청년들의 삶의 모습은 대학 내부의 분화를 통해서도 쉽게 목격된다(김사과 외, 2010).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격차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일상 속에서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은 매순간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자각하며 살아

가게 된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이들은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김사과 외, 2010). 가령, 사회경제적 조건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연애상대자를 만나기 쉽다고 믿으며, 반대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할수록 연애상대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느낀다(동그라미재단, 2016; 김영미, 2016).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취업과 진급,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특히 심각하다고 인식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김영미(2016)는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불평등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큼을 강조하면서, 최상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년층보다도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취약 계층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불신, 회의, 체념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정수남 외, 2012).

헨드리와 클롭(Hendry · Kloep, 2007)에 따르면 중상층 청년들은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존속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하층 청년들은 중상층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가족 형성, 자녀 교육, 노후 소득, 사회적 성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정범석 · 정화민, 2014; 동그라미재단, 2016). 넉넉한 가정의 청년들은 연애 및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거, 일자리라는 현재 한국 사회 청년들이 포기했다는 항목에 있어서도 형편이 넉넉치 못한 청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른 세대에 비해 현재의 청년층이 세대 간 이동에 가장 비관적인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 내에서 가족배경에 따

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이봉주, 2016; 동그라미재단,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청년세대 내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결혼, 출산, 취업의 실제 이행 양상 및 의향을 통해 그 이질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2~30대의 주요한 발달과업들을 포기하는 과정이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얼마나,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권소영 외, 2017; Han, 2015; Ono, 2003; Wiik, 2009; 한영선, 2015; 이수진, 2015) 및 실제 이행 확률이 높은 경향을 띤다(민인식·최필선, 2015; 윤자영, 2012). 과거에는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임이 주장되어져 왔지만(Park·Lee, 2014; 김정석, 2006; 우해봉, 2012), 최근 들어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에게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의 정적 효과가 발견된다(민인식·최필선, 2015; 윤자영, 2012).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비용의 문제가 결혼이행 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써(이삼식 외, 2015),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은 출산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교육과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다(신윤정, 2008; 장혜경 외, 2004; 마미정, 2008; 배광일, 2015; 임혜정·방수민, 2016).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이 오히려 높은 출산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Yoo, 2014). 나아가 가구소득과 학력은 취업 대기시간을 줄이며(장상수, 2000) 직장이행 확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이현성, 2010; 이규용·김용현, 2003). 즉 출산과 취업의 이행 확률 모두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이 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앞 절에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청년세대를 다루고 있던 연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세대주의

적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다룬 연구들은 시대적인 맥락과 사회 구조 속 이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N포세대라는 하나의 세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신감, 기대, 계획에서 차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타고나는 가정환경에 따라 청년들은 사실 매우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렇게 생애과정과 삶의 기회 등에서 나타나는 상이성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포기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한다.

본 연구가 애초에 가졌던 ‘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다시금 떠올릴 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상이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의 청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희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청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절망적이지도 않듯, 사회경제적 조건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청년들의 포기의 내용은 존재한다. 개인들이 속한 사회 구조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유의 삶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기회를 극대화 하는지에 있어서는 저마다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lder,1974),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담론으로 한정되지 않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는 청년들의 포기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에 대한 측정은 대개 ‘당신은 N포세대가 가리키는 항목 중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라는 다소 단순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으로는 포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포기의 여부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문항은 정밀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동일하게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연애, 결혼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포기가 응답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즉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체념한 것인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등 설문에 포기했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저마다 무슨 의미에서 포기를 말하고 있는지는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측정방법은 포기의 항목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은 모두 긴밀하게 연계된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들이다. 취업여부는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결혼사건 발생확률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가 존재하기도 하며(최필선·민인식, 2015), 직장에서의 역할은 결혼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경쟁하기 때문에 취업은 결혼이행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도 발견된다(Coony·Hogan, 1991).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다루어져 온 바다(남국현·김대일, 2016). 포기의 항목들을 개별 단위로 다루면서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그리고 그 특정한 무엇을 왜 포기했는지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언급한 연구들에서 보여지듯 한 영역에 대한 열망이 곧 다른 영역에 대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역에 더 가치를 두는지가 결국 어떤 영역을 왜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청년세대의 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하의 절에서는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가진 포기의 새로운 측정방법은 어떠한지,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발견되는 포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다양한 내용의 포기가 포착될 수 있을지 또한 선형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2.3 본 연구의 ‘포기’의 조작적 정의: 포기의 다양성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담론으로 한정되지 않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해왔던 포기의 측정방법으로부터 차별화된,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의 질문으로는 포기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포기를 같은 포기로 치부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사실상 ‘포기 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포기를 과대 또는 과소 측정할 위험을 가진다.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포기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측

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년들의 포기를 측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포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들 사이에서 ‘포기’란,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적 사실 social fact 개념과 같이 공유되는 마음, 감정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단어의 직접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포기의 여부를 묻는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결혼을 포기했다’ 또는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응답이 도출된다. 이렇게 측정되는 포기는 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실현가능성과 꿈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측정된 포기는 행위적이고 결과적이기보다는 인지적인 특성을 더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포기로 실제로 귀결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꿈을 바탕으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둘 간 발생하는 격차를 바탕으로 어떠한 포기로 이어질지를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선형적으로 예측해본 포기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을 때이다. 형편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꿈도 꾸지 않거나 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N포라는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포기의 내용과 흡사하다. 또한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꿈의 정도는 낮을 때이다. 즉 원한다면 이를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꿈꾸기를 소홀히 하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기라는 점에서 능동적 또는 자발적인 포기로 이해해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포기를 논할 때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처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기이다. 이와 반

대로, 꿈은 높게 갖고 있는 데 비해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원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능동적인 포기와는 다르게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인하는 포기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포기로 이해해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이 경우에는 본 연구의 측정방법 하에 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게 판단함에도 꿈을 꾸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포기보다는 ‘임시적 포기’와 같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포기의 하위 항목들에 대한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키는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예측해본 세 가지 형태의 포기가 모든 항목들에 있어 일관되게 나타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항목들 간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실현가능성-꿈 간의 격차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몇 가지 유형의 포기가 발견되는지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4 다양한 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가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결정짓는 것일까? 본 연구는 포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판단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주관적 계층의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의식은 교육, 소득, 직업 등 객관적인 요소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지만, 계층의식의 형성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정의하는 주관적 판단이다(조동기, 2006; 서광민, 2009). 따라서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실제 그의 객관적인 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계층적 지표이다. 본 연구는 포기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비해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동일한 소득 분위에 속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포기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에게 주관적 계층의식이 형성되면, 자신과 동일한 지위라고 스스로 판단한 집단이 그의 준거집단이 된다는 사실(김자영·김두섭, 2013)과 연관되어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비교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의 실현가능성을 파악하여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하는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원하게 되는지 또한 영향 받는다. 계층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징짓는 의식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포기의 중요한 사회적 동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포기의 유형들의 결정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지닌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에 있어 상이한 모습을 띠 수 있다는 사실이 행위자 원칙(Elder, 1974)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조
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
는지에 따라 구조의 영향력에 저항하며, 때로는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 못지않게 청년들이 자신의 사회이동 가
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포기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가 포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결혼, 출산 등
포기의 하위 항목들에 대해 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의 문항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도 사회이동성 인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사회이
동 가능성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개인들이 가진 꿈
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의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함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
지는 영향력 또한 탐구해보고자 한다.

사회이동성 인식과 포기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
지 존재하지 않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
다. 첫째, 계층상승이동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계
층상승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뿐
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Molnar 외,
2006).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차례로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
적인 기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김정호, 2007) 사회이동성 인식과 포기
간의 연계성을 그려볼 수 있다.

둘째, 사회계층적 요소들은 현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반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포기와 동일하게 전망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서 이 둘 간의 연관성이 더 강할 수 있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현

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한국 사회라는 구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얼마만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이들이 결과적으로 포기에 대해 말하는 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불평등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된다. 반면, 현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회계층적 조건들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²⁾

종합적으로, 다양한 포기의 내용들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사용한다고 할 때, 앞서 선형적으로 예측해본 포기의 다양한 내용들이 각각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2) 그러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형성에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한준, 2016),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회불평등 인식이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김문길 외, 2013; 장상수, 2004; 조동현, 2006; 석현호 외 2005; 전성표, 2006),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사회이동성 인식을 굳이 분리시켜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득 및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상승 가능성 간 정(+)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지은·이재완, 2015).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이 주관적 인식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며, 주관적 인식은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경도되기도 한다는 점(한준, 2016)에서 이 둘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 형성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소득격차와 미래기대 간의 관계를 다룬 금현섭과 백승주(2014)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현재 고소득자라고 해서 그 상황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개인의 과거 소득변화 추이가 언급된다. 즉 과거에 소득하락을 경험했는지 또는 소득상승을 경험했는지와, 그 정도에 따라 현재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미래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에도 적용시켜, 과거에 본인 및 부모의 사회이동 경험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현재 동일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미래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상이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식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을 때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갖추고 있는 조건을 대상으로 내리는 평가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꿈꾸는 정도와 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모두 낮을 때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실현가능성은 높은 반면 꿈꾸는 정도는 낮을 때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높은 반면 사회이동성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일 때 이러한 포기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계층의식은 낮게, 사회이동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은 낮게, 꿈꾸는 정도는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높아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할 때에는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모두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 간의 격차가 포기의 하위 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역별 격차까지 고려하여 도출된 포기의 유형들에 있어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단순한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항목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포기의 내용과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한층 더 복잡complex할 수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실현가능성과 꿈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하위 항목에 있어 상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출산에 대한 꿈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에 대한 꿈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연애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내 집 마련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포기의 다양한 내용들과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

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선형적인 예측이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미치기는 어렵지만, 분석을 통해 이를 심도있게 탐구해볼 것이다.

2.5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나 문화연구들이 ‘N포세대’라는 표현을 통해 단일화시키고 있는 청년들의 포기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의될 때 발생하는 포기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년들의 포기의 내용이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이를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라는 질문에, 방법론적으로 보완된 접근을 더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둘째, 질적으로 다양한 포기의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왜 다양한 것인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년이다. 그러나 청년을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볼 것인지 그 연령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 청년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난립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청년범주는 15-29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치 영역에서 청년은 30대 후반까지도 포괄한다. 연구마다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범위 또한 상이하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경우도 19-29세, 20-35세, 20-39세 등 저마다 다양하게 청년세대를 정의한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이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별히 본 연구의 목적을 참작하여 청년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적합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를 연령에 근거하여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세대관점에서는 점점 더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생애과정의 이질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청년기의 탈표준화 및 탈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Settersten, 2003), 한국에서도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고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전상진·정주훈, 2006). 실제로 고등교육 단계를 마치면 곧바로 취업을 하던 표준 생애주기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취준생’ 혹은 ‘대학생-휴학-알바생’의 지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탈표준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배은경, 2015). 생애과정의 전이가 연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양

상이 감소함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를 바탕으로 청년세대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어떠한 생애과정의 단계까지를 청년시기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청년 범위 설정에 복잡함을 더한다. 예컨대 취업까지를 청년의 문제로 볼 경우 30대에도 여전히 직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청년지원 관련 법 시행령과 통계청 집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 15-29세의 청년 범위를 34세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 육아까지도 청년의 문제로 볼 경우 39세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청년을 연령에 근거하여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관점이 있다면, 청년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을 대체로 연령에 근거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에는 과거와 달리 그 의미 속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세대적 특징, 즉 현재의 청년층이 가진 출생코호트적인 특질이 함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세부터 35세의 청년들로, 이들이 말하는 포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코호트의 세대 개념으로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3.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성을 탐구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한 “2016 한국 청년 가치관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

으로'라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가치관과 행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청년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³⁾.

이 연구는 꿈이 사회적 실천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꿈-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꿈-자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와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 설문은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이고 꿈은 무엇인지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청년세대의 '꿈과 고뇌'에 대한 최초의 의식조사이다.

본래의 조사 대상은 문화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교육받고 있는 '창의청년'이었으나, 후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발견점을 한국 사회의 일반 청년들과 대비시켜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 대상을 확장시켰다. 구조화된 설문지에는 언급한 꿈-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꿈의 여러 차원들, 꿈이 구성된 경로, 꿈의 내용, 꿈과 관련된 공동체 등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 미디어 사용, 문화자본, 학력, 직업과 경제적 수준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료라고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청년만을 대상으로 모아진 자료를 사용하며, 분석에는 총 793명이 포함되었다.

3) 귀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연구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3 사용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되어 각각 다른 특성을 띠는 포기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포기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보고자 설문자료로부터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꿈(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대비시켜 포기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매우 낮으면 1, 매우 높으면 5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잠재집단분석을 위해 4~5로 답하였으면 실현가능하거나 높은 꿈을 꾸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부여하고, 1~3으로 답하였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조작화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으로 도출된 포기의 다섯 가지 유형들에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주관적 계층의식과 함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관적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포기를 논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개념상 더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최하층을 1점으로, 최상층을 10점으로 하는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즉 현재의 지위에 비해 상승 가능성을 얼마만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해당 사회가 얼마나 계층이동을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변수로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4점 척도로,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1점,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4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및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그리고 포기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성별, 연령, 지역, 종교유무, 노동시장 참여형태, 사회자본,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 기존 연구들이 사용해온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출산과 같이 특정 항목에 대한 포기는 성별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 남성일 경우 1, 여성일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연령은 동일하게 청년이라고 불릴지라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연령 집단에 따라 특정 발달과업들을 포기하는 정도에 있어 상이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는 연령 집단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컨대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이 출산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대도시를 준거 집단으로 하는 2개의 가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종교는 무교를 기준범주로 종교 있음에 1을 부여하였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참여여부를 포함하여 상용직에 1, 일용직/임시직에 2, 자영업에 3, 무직에 4를 부여하여 명목변수로 사용하였다.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각각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과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으로 코딩하였으며 고졸과 중학교 이하를 기준범주로 하는 가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존에 명목변수로 측정되어 100만원 미만을 1로, 1,000만원 이상에 13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응답자들이 보유한 인맥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조작화하고자 하였다. 인맥이 크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지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계층상승 가능성과 포기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료효과(peer effect)에 의해서라도 포기는 사회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직업위세 판단 기준에 따라(최태룡, 2009) 생산직/하급서비스직/판매직에 1점, 사무직/여러 직종의 자영층에 2점, 준전문직/중간관리직에 3점, 나아가 전문직/관리직에 4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의 문항에서 포함하는 10가지 직종을 분류하였다. 각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이 없을시 0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자본 변수는 5점 척도를 가지며, 지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4에 가까운 점수를 가진다.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이어져(김정호, 2007) 계층상승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언급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사용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N: 793)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종속변수			
실현가능성 - 연애	0.66	0.47	0-1
실현가능성 - 결혼	0.53	0.49	0-1
실현가능성 - 출산	0.42	0.49	0-1
실현가능성 - 내 집 마련	0.50	0.50	0-1
실현가능성 - 취업	0.64	0.48	0-1
꿈꾸는 정도 - 연애	0.66	0.47	0-1
꿈꾸는 정도 - 결혼	0.57	0.48	0-1
꿈꾸는 정도 - 출산	0.45	0.50	0-1
꿈꾸는 정도 - 내 집 마련	0.74	0.44	0-1
꿈꾸는 정도 - 취업	0.74	0.44	0-1
독립변수			
주관적 계층의식	5.02	1.53	1-10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16	0.61	1-4
통제변수			
남성	0.52	0.49	0-1
여성	0.48	0.49	0-1
20대 초반	0.35	0.48	0-1
20대 후반	0.31	0.46	0-1
30대 초반	0.34	0.47	0-1
대도시	0.48	0.49	0-1
중소도시	0.47	0.49	0-1
농촌	0.05	0.23	0-1
종교 있음	0.41	0.49	0-1

상용직	0.39	0.48	0-1
일용직/임시직	0.11	0.31	0-1
자영업	0.04	0.19	0-1
무직	0.45	0.49	0-1
사회자본	1.62	1.14	0-4
생활만족도	3.89	0.99	1-7
본인교육 - 고졸	0.08	0.27	0-1
본인교육 - 전문대졸	0.17	0.37	0-1
본인교육 - 대학교졸	0.68	0.47	0-1
본인교육 - 대학원졸	0.07	0.25	0-1
아버지 교육 - 중학교 이하	0.18	0.38	0-1
아버지 교육 - 고등학교 이하	0.38	0.49	0-1
아버지 교육 - 대학교 이상	0.37	0.48	0-1
어머니 교육 - 중학교 이하	0.20	0.40	0-1
어머니 교육 - 고등학교 이하	0.47	0.49	0-1
어머니 교육 - 대학교 이상	0.26	0.44	0-1
100만원 미만	0.04	0.21	0-1
100만원-150만원 미만	0.04	0.19	0-1
150만원-200만원 미만	0.07	0.26	0-1
200만원-250만원 미만	0.07	0.25	0-1
250만원-300만원 미만	0.10	0.30	0-1
300만원-400만원 미만	0.17	0.38	0-1
400만원-500만원 미만	0.14	0.35	0-1
500만원-600만원 미만	0.12	0.32	0-1
600만원-700만원 미만	0.08	0.27	0-1
700만원-800만원 미만	0.06	0.23	0-1
800만원-900만원 미만	0.04	0.19	0-1
900만원-1,000만원 미만	0.03	0.17	0-1
1,000만원 이상	0.04	0.19	0-1

3.4 분석방법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가 어떠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여러 개의 이항 변수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잠재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이다 (Nylund, Asparouhov, and Muthen, 2007). 즉 관찰된 이산변수(discrete observed variables)로부터 몇 개의 유의미한 잠재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이윤석, 2005). 각각의 포기의 하위 항목에 있어 응답자들의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몇 개의 포기 유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천하는 준거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짓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atent Gold 4.5와 STATA 14.0을 활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포기의 잠재유형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의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잠재집단 유형을 파악하고자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최적의 잠재집단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BIC와 Likelihood ratio chi-square는 그 값이 줄어들수록 모형 선택에 유리한 기준이 된다.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잠재집단을 1에서 5로 늘릴수록 BIC와 Likelihood ratio chi-square 값은 감소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0.05$). 한편 집단의 수가 6개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BIC값이 집단이 5개인 경우보다 크고, LL값의 감소폭도 적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집단별로 응답자 분류가 잘 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엔트로피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5개 집단의 엔트로피는 0.8234로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포기의 잠재유형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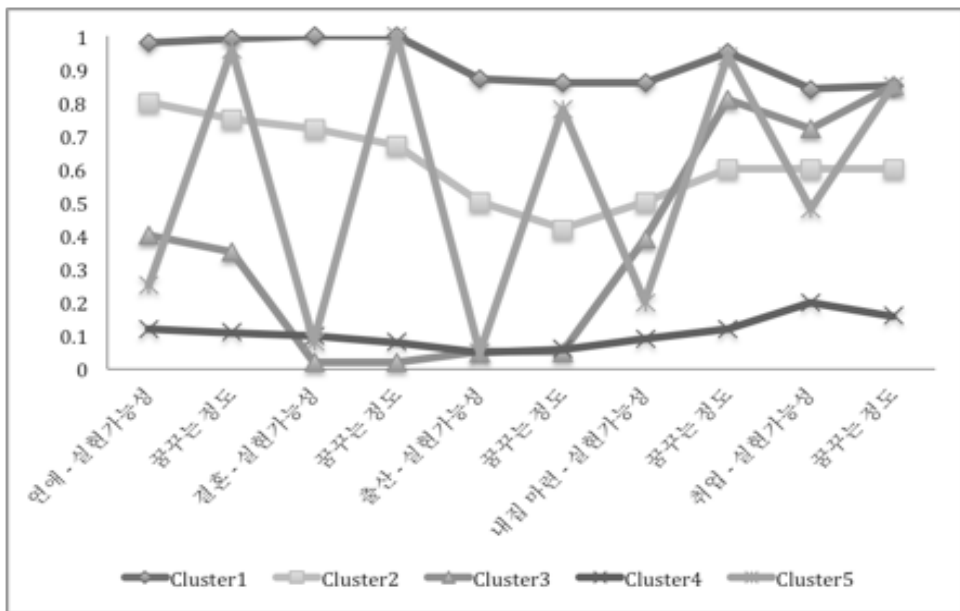
〈표 2〉 잠재유형의 모형적합성

집단	BIC	LL	df	p-value	Entropy
1	10422.8234	-5178.0330	783	2.0E-288	1.0000
2	8710.7571	-4285.2824	772	2.3E-40	0.8699
3	8453.7224	-4120.0480	761	9.6E-14	0.8136
4	8354.3913	-4033.6654	750	4.4E-5	0.8176
5	8265.6033	-3952.5544	739	0.39	0.8234
6	8286.6914	-3926.3815	728	0.79	0.8086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LL (Likelihood ratio chi-square)

10가지 문항에 따라 확인된 포기의 잠재유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출된 각 유형의 특성을 관찰하여 집단을 명명하였다.

〈그림 1〉 포기의 잠재집단분석 결과



집단 1의 경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 전체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모든 영역에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간의 격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의 30.77%를 차지하는 집단 1은 N포세대 담론이 가리키는 청년세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각 영역이 매우 실현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높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다. 즉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이 집단을 ‘소유층’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7.36%를 차지하는 집단 2의 경우에는 실현가능성과 꿈 간의 격차에 있어서나, 포기의 항목들 간의 격차에 있어서나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집단 2를 가리키는 선의 형태가 소유층 집단의 그것과 제법 흡사하다. 다만 모든 항목에 대해 소유층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은 집단 4나 항목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집단 3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 걸쳐 이 집단의 조건부 확률은 대체적으로 중간 즈음에 머문다. 본 연구는 이 집단을 ‘불확신불안형 포기’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과 꿈의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포기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면 항목들의 실현가능성과 꿈에 대한 판단이 확연히 낮거나 높지 않고 애매모호한 중간 정도의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집단이 “사회경제적 부담감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청년들”(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4)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집단을 불확신불안형 ‘포기’ 집단으로 명명하는 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은 포기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의 다양한 내용을 탐구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 하에 모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면서 포기하지 않

음을 명백히 가리키는 소유층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을 어떠한 조건부의 포기로 명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불확신불안형 포기라고 할 때 중점은 ‘불확신감’과 ‘불안’에 있다.

집단 3에서는 내 집 마련에서만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미한 격차만 존재한다. 내 집 마련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비해 높은 꿈을 꾸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만큼만 꿈꾼다. 이 집단은 항목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의 실현가능성과 꿈을 높게 판단하는 확률은 낮게,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높게, 연애의 경우는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항목 간 두드러지는 격차로 미루어볼 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여 실현 가능한 만큼만 꿈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실주의형 포기’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9.92%를 차지한다.

집단 4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있어 긍정적으로 답했을 확률이 가장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 따라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간 차이도 매우 작다. 결론적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모두에 걸쳐 실현가능성을 가장 낮게 판단하며, 따라서 꿈도 가장 낮게 꾸는다. 이는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실되었음을 함축하는 ‘흠수저론’이 가리키는 청년들의 포기와 흡사한 것이다. 따라서 ‘자포자기형 포기’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3.24%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5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실현가능성보다 꿈꾸는 정도가 확연히 높다. 취업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타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는 여전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으나 그럼에도 꿈을 크게 꾸고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황이 개선되면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예형 포기’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8.70%를 차지한

다.

분석결과, 본 연구가 선형적으로 예측한 포기의 내용이 일부 발견되었다. 모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낮은 집단과,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꿈은 높게 꾸는 집단이다. 포기의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과 꿈 간의 격차가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다양한 양상을 띤다. 격차가 한 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실현가능성은 높게, 꿈은 낮게 측정된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잠재집단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 하에는 다 같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은 사실 동일한 형태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N포로 단일화 또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에는 결이 다른 포기가 존재한다. N포의 속성을 띠는 포기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의 포기의 13.24% 정도만을 설명한다. 또한 포기하지 않은 집단도 30%를 차지한다. 이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논의로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포기 담론은 포기의 실제의 대략 45% 정도만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55%는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본 연구의 분석으로 발견된 포기의 새로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했는가’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섯 가지 유형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토대로 유형화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을 단순히 모두, 그리고 모두 다 같은 수준으로 포기(안)하지 않는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들 사이에서 나타난 측정치 간의 차이는 한 영역에서 포기했다고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예컨대 현실주의형 포기 집단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포기의 하위 항목들을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포기의 항목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분석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은 결혼과 취업을 포기한 만큼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에 대해 여전히 높은 꿈을 가진다.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를 대비시켜 발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얼마나 포기했는지, 즉 포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에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게 측정되었을 때는 철저한 포기,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실현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꿈을 가지고 있는 유예형 포기 집단의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임시적으로’ 포기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임시적인 포기는 완전한 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정도로 보았을 때는 덜 진지한intense 포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불확신불안형 포기도 포기의 정도에 있어서는 유예형 포기와 유사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현실주의형 포기 집단의 경우에는 포기의 정도가 항목 간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결혼과 출산의 실현가능성과 꿈을 높게 판단하는 확률이 가장 낮게 드러나면서 이 두 가지를 연애와 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일관되게 낮지 않다는 점에서 (i.e. 취업),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처럼 철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합리적, 선택적으로 특정 영역만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의미 지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설정한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답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배워진다. 도출된 다섯 개의 집단들 중 소유층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집단은 저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각기 다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뉜 유형들이 다양성의 원인 요소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으로부터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예측하였던 대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은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과 반대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높은 소유층 집단의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는가? 나아가 주관적 계층의식은 비교적 낮게, 사회이동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유예형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2 포기 유형의 특징

우선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유형들에 속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3>이 유형별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각 포기 유형에 속한 응답자의 특성

		소유층	불확신불안형 포기	현실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유예형 포기
사례수 (N)		244	217	158	105	69
성별	남성	128 (52.46%)	118 (54.48%)	81 (51.27)	50 (47.62%)	40 (57.97%)
	여성	116 (47.54%)	99 (45.62)	77 (48.73%)	55 (52.38%)	29 (42.03%)
연령	연령	29.12 (4.34)	28.63 (4.36)	27.04 (3.78)	27.89 (4.12)	27.94 (4.22)
지역	대도시	117 (47.95%)	101 (46.54%)	80 (50.63%)	48 (45.71%)	32 (46.38%)
	중소도시	116 (47.54%)	99 (45.62%)	70 (44.30%)	52 (49.52%)	35 (50.72%)
	농촌	11 (4.51%)	17 (7.83%)	8 (5.06%)	5 (4.76%)	2 (2.90%)
종교	종교 있음	128 (52.67%)	100 (46.08%)	37 (23.57%)	36 (34.29%)	24 (34.78%)
교육수준	본인 교육	2.79 (0.69)	2.77 (0.67)	2.77 (0.65)	2.51 (0.81)	2.75 (0.69)
	아버지 교육	2.21 (0.74)	2.26 (0.77)	2.16 (0.74)	2.21 (0.71)	2.18 (0.70)
	어머니 교육	2.06 (0.71)	2.08 (0.76)	2.07 (0.65)	1.92 (0.66)	2.12 (0.59)
가구소득	<100만원 ~ <250만원	38 (15.57%)	42 (19.35%)	47 (29.75%)	35 (33.33%)	16 (23.19%)
	250만원 ~ <500만원	99 (40.57%)	92 (42.40%)	64 (40.51%)	44 (41.90%)	28 (40.58%)
	500만원 ~ <800만원	76 (31.15%)	53 (24.42%)	34 (21.52%)	19 (18.10%)	20 (28.99%)
	>800만원	31 (12.70%)	30 (13.82%)	13 (8.23%)	7 (6.67%)	5 (7.25%)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계층의식	5.51 (1.48)	5.04 (1.57)	4.59 (1.37)	4.55 (1.43)	4.91 (1.50)
사회이동성 인식	사회이동성 인식	2.34 (0.61)	2.22 (0.61)	1.99 (0.59)	2.04 (0.54)	1.93 (0.60)
사회자본	사회자본	1.75 (1.09)	1.53 (1.05)	1.56 (1.19)	1.48 (1.23)	1.75 (1.2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3.48 (0.94)	3.92 (0.94)	4.15 (0.88)	4.26 (0.97)	4.07 (1.13)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유형별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유예형 포기 집단의 성비율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남성이 대략 58%를, 여성이 42%를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이 일반적으로 나이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등을 유예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격차가 크지 않다.

평균 연령은 27세부터 29세 사이로 나타난다. 유의할 점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은 소유층 집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 이는 꿈의 정도와는 별개로 나이가 많을수록 연애, 결혼, 출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항목의 실현가능성과 꿈이 낮게 측정된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의 평균 연령이 두 번째로 작다. 이는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연령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나, 유형 간 연령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소유층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종교가 개인들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동력과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회복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본인의 교육수준 평균의 경우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교육에 따라 유형 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인의 교육수준이 타집단에 비해 낮았던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의 경우도 아버지 교육에서는 타집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머니 교육수준은 본인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 낮게 측정된다. 유예형 포기에서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이 가장 높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비슷한 평균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의 평균 교육수준 상으로는 자포자기형 유형만 타집단으로부터 차별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가구소득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비율은 자포자기형 유형에서 가장 높으며 소유층 집단에서 가장 낮다. 반대로 800만원 이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유형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본 연구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평균값이 소유층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자포자기형 유형에서 가장 낮다. 유예형 집단과 불확신불안형 집단의 평균값은 그 사이에 위치하며, 현실주의형 유형은 자포자기형 유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낮은 계층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포기의 유형들의 특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집단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지표들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포기에 있어 객관적인 요소들이 아닌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임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지표들 상 큰 차이

가 나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다른 내용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 인과적인 효과가 발견되는지는 다음 절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현실주의형과 유예형 포기 유형의 경우도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과 매우 흡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이 두 집단은 가구소득에서 저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층의식도 두 집단에 비해 낮다. 그러나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 간에서 나타난 바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지표상 대체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띠는 현실주의형과 유예형 포기 유형 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에서는 상이성이 발견된다. 유예형 포기 집단이 가진 주관적 계층의식의 평균값은 4.91로 현실주의형 유형의 4.59보다 높다. 유예형 포기 유형에서 저소득 집단의 비율이 좀 더 작다는 점과 500만원부터 800만원 사이의 가구소득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 효과일 수 있다. 또는 사회자본이 더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효과일 수 있다. 한편,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 상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나아가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도 일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나아가 사회이동성 인식에서도 소유층 집단은 타집단과 비교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진다. 팔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지표에서는 일관되게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던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에 있어서는 현실주의형 집단과 유예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불확신불안형 포기 집단의 경우 소유층 유형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의 사회이동성 인식을 보이며, 유예형 포기 집단의 평균값은 1.93으로 가장 낮다. 그러나 어떠한 포기를 하고 있던 간에 우리 사회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가 모두 높은 소유층 집단에서 평균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예상을 비껴갔다. 우선 유예형 포기 집단의 사회이동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지만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자신의 계층상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로 하여금 높은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이동성 인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낮은 개인들이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이 집단의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한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이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으나, 꿈을 꾸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내기는 힘들다. 사회이동성 인식이 상대적 수준이 아닌 객관적 수준에서 여전히 낮기 때문이거나,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현실주의형 포기 유형의 평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대체적으로 낮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포기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해나가는 청년들일 수 있다.

불확신불안형 유형의 경우 평균적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모두 소유층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유형들에 비해 높다.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앞으로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지만, 이를 더 낮게 판단하여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불확신감과 불안함 속에서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실제 인과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포기 유형의 결정요소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포기의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을 청년세대의 포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해온 만큼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한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로서도 주요한 영향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동일한 사회 구조 속에 위치했을지라도 그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상이성이 포기의 다양한 내용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사회자본, 생활만족도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시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유층 집단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포기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각각 불확신불안형 포기, 현실주의형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그리고 유예형 포기 집단에 속할 개연성을 나타낸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포기의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불확신불안형 포기			현실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유예형 포기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주관적 계층의식	-0.25***	0.08	0.78	-0.35***	0.09	0.70	-0.32***	0.09	0.73	-0.16	0.10	0.85
사회이동성 인식	-0.15	0.18	0.86	-0.84***	0.21	0.43	-0.47*	0.23	0.63	-1.10***	0.27	0.33
성별												
남성 ^a												
여성	0.15	0.20	1.16	0.09	0.23	1.10	-0.02	0.26	1.02	0.46	0.29	1.59
연령집단												
20대 초반 ^a												
20대 후반	-0.16	0.28	0.85	-0.22	0.30	0.80	0.29	0.33	1.33	-0.17	0.38	0.85
30대 초반	-0.23	0.28	0.79	-1.22***	0.34	0.29	-0.51	0.36	0.60	-0.56	0.41	0.57
지역												
대도시 ^a												
중소도시	0.14	0.21	1.15	-0.08	0.24	0.93	0.03	0.27	1.03	0.09	0.30	1.10
농촌	0.48	0.44	1.62	-0.02	0.54	0.98	-0.31	0.62	0.73	-0.33	0.83	0.71
종교 있음	-0.23	0.20	0.79	-1.13***	0.25	0.32	-0.62*	0.27	0.54	-0.73*	0.31	0.48
노동시장 참여형태												
상용직 ^a												
일용직/임시직	0.20	0.37	1.22	0.40	0.43	1.49	0.74	0.46	2.11	0.56	0.51	1.75
자영업	0.10	0.48	1.10	-0.25	0.66	0.78	-0.09	0.68	0.91	-1.07	1.09	0.34

무직	0.40	0.25	1.49	0.77**	0.30	2.17	0.75*	0.32	2.12	0.48	0.38	1.62
본인 교육수준												
고졸 ^a												
전문대졸	0.34	0.46	1.41	0.04	0.53	1.04	0.07	0.49	1.07	0.30	0.65	1.35
대학교졸	0.27	0.41	1.31	0.29	0.46	1.34	-0.63	0.44	0.53	0.05	0.58	1.05
대학원졸	0.12	0.54	1.13	0.20	0.66	1.23	-0.58	0.68	0.56	0.31	0.79	1.36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a												
고등학교 이하	-0.14	0.32	0.87	-0.21	0.37	0.81	0.45	0.49	1.58	-0.14	0.48	0.87
대학교 이상	0.32	0.37	1.37	-0.09	0.43	0.91	1.02*	0.49	2.80	-0.20	0.54	0.82
missing ⁴⁾	-0.68	0.70	0.50	-0.46	0.80	0.63	0.79	0.79	2.20	-0.22	1.06	0.80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a												
고등학교 이하	-0.34	0.31	0.71	0.11	0.37	1.12	-0.42	0.39	0.66	0.88 [†]	0.51	2.40
대학교 이상	-0.08	0.38	0.92	0.19	0.46	1.21	-0.87 [†]	0.50	0.42	0.76	0.62	2.15
missing	0.35	0.65	1.42	-0.08	0.77	0.92	-0.89	0.77	0.46	0.11	1.07	1.11
가구소득	0.06	0.04	1.07	0.02	0.05	1.02	-0.00	0.05	0.99	0.00	0.06	1.00
사회자본	-0.17 [†]	0.09	0.84	-0.09	0.10	0.91	-0.11	0.12	0.89	0.04	0.13	1.04
생활만족도	0.46***	0.11	1.59	0.54***	0.13	1.71	0.72***	0.14	2.06	0.50**	0.16	1.65
Constant		-0.61 (0.94)			1.39 (1.08)				-0.61 (1.15)			-0.60 (1.37)
Chi-squared							262.53					

-2 Log-Likelihood	-1070.4102
Pseudo R ²	0.1092
N	793

주: 이 분석의 기준은 소유층 집단임.

^a 는 준거집단을 나타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표본 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결측값을 더미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과 종교유무만 포기의 유형들을 결정짓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다. 30대 초반이 20대 초반에 비해 소유층 집단에 속하기보다는 현실주의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30대 초반일수록 현실주의형 포기를 할 승산(odds)은 0.29배 감소한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뜻밖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현실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평균 연령은 유형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장 낮다(27.04세).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전략적으로 미래를 계획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층 집단에 속하기보다 현실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또는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교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의 포기를 할 승산은 각각 0.32, 0.54, 0.48배 감소한다.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인들을 많이 알수록 소유층 유형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낮은 경향을 띤다. 사회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불확신불안형 유형에 속할 승산은 0.84배 감소한다.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기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학연, 지연 등 연줄에 의해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층 유형의 사람들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감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다른 유형의 포기에서, 특별히 완전한 포기를 하고 있는 자포자기형 유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다소 이례적인 결과가 발견된다.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모든 항목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높게 평가한 소유층 유형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 등 어떤 유형의 포기인지를 불문하고 포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유층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이 차례대로 1.59, 1.71, 2.06, 1.65배 증가하는 가운데, 괄목할 점은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 그 값이 가장 높다. 이를 두고는, 포기하는 청년들이 일본의 사토리세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오랜 경기 침체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도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토리세대처럼, 자포자기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생활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포자기형 포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삼포, 오포세대는 일본의 사토리세대와 같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를 염두에 둘 때⁵⁾, 무엇이 포기하

5) 현재 한국은 사토리세대가 크게 확장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토리세대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은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버겁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300-400을 버는 것이 가능하며, 또 18-34세 남성은 70%, 여성은 80%가 부모와 함께 살며 굳이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기 불황을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기대 소멸'은 제로 금리마냥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행복에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히 했다. 세대나 개인을 막론하고 아우르는 '기대 소멸의 보편성'은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와 감성을 배양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본 사회에서는 딱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절망의 나라에 행복한 젊은이들」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는 이들로 하여금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는 추후에 더 면밀한 탐색을 요하는 바다.

기존 연구들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의 교육수준은 포기의 유형들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 개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상용직일 때 비해 무직일 때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개연성이 크다. 소유층 집단에 비해 이 두 가지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각각 2.17, 2.12배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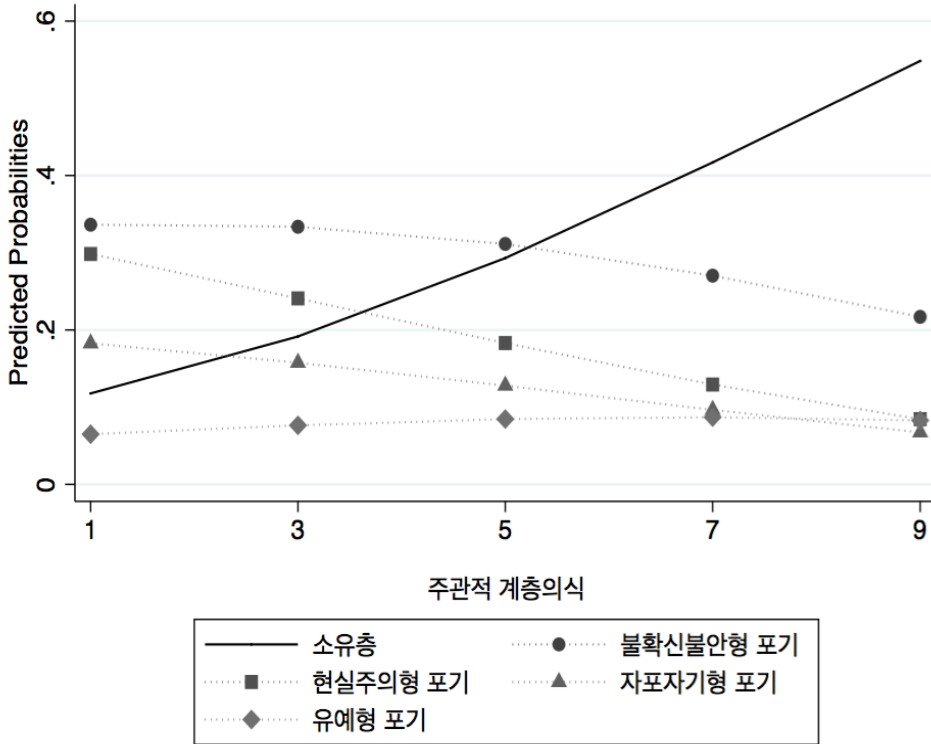
아버지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하일 때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소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자포자기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이례적인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 때 하나도 포기하지 않기보다는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교육수준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일 때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소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이 0.42배 감소한다. 따라서 자포자기형 유형을 결정짓는 데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 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심도있는 분석을 요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일 때 비해 고등학교 이하일 때 소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소 흥미로운 결과라 여겨지는 점은 가구소득의 효과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꿈, 희망, 포기 관련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변수로 많은 경우 가구소득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포기의 유형을 결정짓는 데 있어 가구소득이 아무런 영향도 가지지 못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조사 대상이 20

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의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가구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구소득 변수의 정확도를 백퍼센트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사용한 본 연구의 선택은 정당성을 가진다.

다음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효과이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하고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 계층의식이 증가할수록 소유층 유형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그리고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가능성이 낮다. 계층의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순서대로 0.78, 0.70, 0.73배 감소한다 <그림 2>.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비해 각각 현실주의형 포기 또는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승산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인해 소유층에 비해 이 두 가지 내용의 포기가 결정 지어지는 정도는 유사하다. 한편 소유층에 비해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어떠한가?

〈그림 2〉 주관적 계층의식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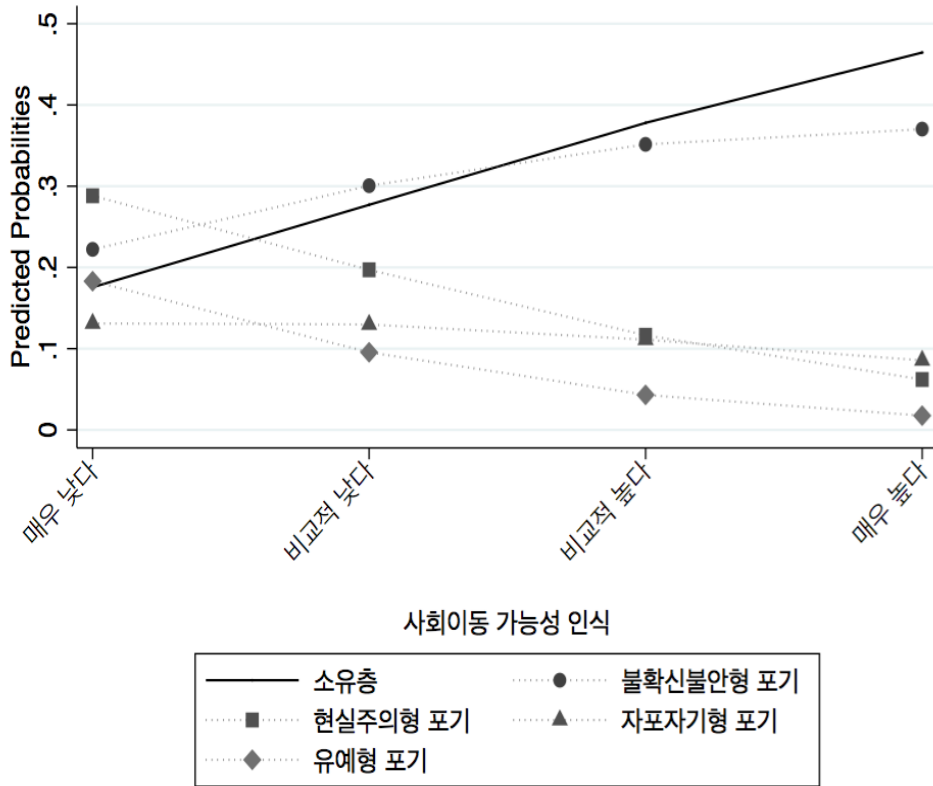
살펴본 결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유예형 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유의한 효과를 지닌다. 사회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0.33배 감소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유예형 포기를 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이 맞다면, 준거집단이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소유층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표 4>에서 보여지는 결과와 반대의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결과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소유층에 비해 유예형 포기를 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으나, 사회

이동성 인식으로는 설명되며, 소유층 집단에 비해 사회이동성 인식이 현저한 수준으로 낮을 때 그러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이들은 정말 유예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집단이 맞는가? 즉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나타난 그림이(i.e. 모든 항목에 있어 낮은 실현가능성과 높은 꿈) 어떠한 포기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적 포기라는 개념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사회이동성 인식 외에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볼 때, 생활만족도가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이동성 인식은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를 결정짓는 유의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현실주의형 포기를 할 승산은 0.43배, 반면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승산은 0.53배 감소한다. 즉 이 두 가지 내용의 포기가 소유층에 비해 실현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으로부터 유사한 영향을 받지만, 사회이동성 인식에 의해서는 상이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하지 않는 개인들에 비해 계층의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되, 사회이동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때 현실주의형 포기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은 소유층 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사회계층적 위치를 낮게 평가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가능성과 꿈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은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유형들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사회이동 가능성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요컨대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들의 포기에 가지는 효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회이동 가능성이 가지는 효과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 외의 모든 유형을 결정짓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 모두 유의하게 작용하는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에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의 영향이 더 크다. 이는 지금까지 청년들의 포기를 야기하는 원인 요소로 사회경제적 배경

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실은 이들의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현재 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미디어와 단편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에세이와 문화연구에 의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로 묘사된다. 포기를 세대적 특성으로 단순화하는 통상적인 담론들은 빈곤, 무한경쟁, 사회 양극화와 같이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맥락에 집중하면서 청년세대에게 ‘N포’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실재하는 포기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포기의 다양성에 접근해보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들을 포기로 이끈다는 기존 논의 하에는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포기 했다’와 ‘포기 하지 않았다’와 같이 청년세대의 포기를 단순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논의의 초점이 포기 그 자체가 가진 내용보다는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포기 자체가 가진 성격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를 모두 같은 포기로 치부하는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측정하였으며,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키는 잠재집단분

석을 통해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신불안형 포기, 현실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그리고 유예형 포기로 각각 이름 붙인, 포기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포기 유형들을 발견하였다. 언급한 순서대로 표본의 27.36%, 19.92%, 13.24%, 8.70%를 차지한다. 또한 포기하지 않은 소유층 집단은 전체 표본의 30.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가 '포기'에 초점을 두고 잠재집단분석 유형들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결과를 오도mislead 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은 '포기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의해 '포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주의형 포기의 경우 포기보다는 오히려 열망이 느껴지는 사람들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족형성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반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유형이 상징하는 청년들 내부의 집단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루어진 본 연구의 해석이 편중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다양한 포기 유형들을 결정짓는 원인요소로서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결정짓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인식 모두가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에 있어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회적 이동가능성 인식이 청년들의 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더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순화되고 일반화되어있는 청년들의 포기담론을 넘어 실제하는 청년들의 포기를 실증적으로 탐구해보았다는 점이다. ‘청년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 시도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양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다섯 가지 유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질적 접근을 동반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심도있게 탐구되어오지 못했던 청년들의 포기를 한층 더 풍부하게 설명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 인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 외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직접적으로 포기와 갖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 그쳤지만, 추후에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진 영향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로서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 점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권소영 · 강시은 · 엄세원 · 박지수 ·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금현섭 · 백승주. 2014.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141-168.
- 김문길 · 김태완 · 박창렬 · 여유진 · 우선희. 2012.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사과 · 정다혜 · 한윤형 · 정소영. 2010. “20대 애기, 들어는 봤어?: 청년 세대의 문화와 정치” 「창작과 비평」 147: 269-299.
- 김영 · 황정미. 2013.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4: 1-26.
- 김자영 ·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이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3. “흔들리는 20대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취업, 진로에 대한 청년층 의식조사”

- 동그라미재단. 2015.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최종 보고서”
- 동그라미재단. 2016.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조사”
- 마미정. 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문은영. 2013. “서울시 2030세대 일-생활 실태 및 정책 지원연구: 2030 청년 여성의 취업문제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민인식·최필선.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민인식·최필선. 2015. “청년층이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 자녀 수에 따른 비교”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1): 31-53.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7-41.
- 서광민. 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 교육수준, 직업, 소득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석현호·차종천·이정우·박종민·김명언·나은영. 200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의 변화』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신광영·문수연. 2012. “계급과 스펙경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

문집 12]

- 신우진·서환주·김준일. 2015. “2000년 이후 한국의 기회 불평등 추이”
「국제경제연구」 21(4): 83-107.
- 신윤정. 2008. “보육, 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오찬호. 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세대'내'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 「문화과학」 63: 107-123.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 우해봉. 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
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151-179.
- 유혜승·김지현·이민영. 2015.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희망제작소」
- 윤자영. 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한국
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기훈. 2012. “청년: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문화과학」 69: 139-147.
- 이봉주.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현실과 대안.
- 이삼식.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수진. 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이윤석. 2005. 「잠재적 집단 분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은희·유현정·이준영. 2016.. “20대 청년세대의 고민과 경제문제에 대
한 탐색적 연구: 주요 인터넷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 교육연구」 12(2): 121-143.
-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태형. 201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월간복지동향」 196: 12-16.
-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47-84.
- 임혜정·방수민. 2016.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의 추가 출산계획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분석: 어머니 학력에 따른 영향력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9): 671-708.
- 장혜경, 이미정, 김영미, 김영란. 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5」
-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 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전성표. 2006.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 정범석·정화민. 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4): 1-19.
-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이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조동현. 2006. “무엇이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그리고 행복의 균열구조”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영선 · 이연숙. 2015. “여성 취업과 일, 가정양립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1): 49-66.
- 한준. 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 인식」 40(4): 45-74.
-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어려운 시대에 안주하는 사토리세대의 정체」 민음사.
- Cooney, T. M., & Hogan, D. P. 1991.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178-190.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s*. Westview Press.
- Hendry, L. B., & Kloep, M. 2007. Examining emerging adulthood: Investigating the emperor's new clothe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 1(2): 74-79.
- Kim, S. H., Kim, H. J., & Joo, Y. J. Dream-capital of Korean and Chinese youth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Kyoto, Japan.
- Lee, S. 2016. Hopeless future and the desire for welfare expansion: Testing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hypothesis in South Korea.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 545-554.
- Mannheim, K. 1952.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성 역 2013.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 Molnar, G., & Kapitany, Z. 2006. Mobility, uncertain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Hungary. *Institute of Economics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Ono, H. 2003. Women's economic standing, marriage timing, and cross-national contexts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275-286.
- Park, H., & Lee, J. 2014. Grow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the retreat from marriage among Korean men. *PSC Working Paper Series, WPS*, 14(5).
- Settersten, R. A., Jr.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In J. Mortimer & M.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81-98). New York: Springer.
- Wiik, K. A. 2009. 'You'd better wait!' -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iming of first marriage versus first cohabit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2): 139-153.
- Yoo, S. H. 2014.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0: 1463-1493.

서민. 2015. “N포세대는 무엇도 포기하지 않았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491>.

중앙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올해 취업 시장 키워드 ‘N포세대’”

<http://news.joins.com/article/18953325>
N포세대, 무엇을 포기했나. 2015. Retrieved from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12197

Abstract

The ‘Giving-Up Generation’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various types of giving-up

Jeeae Ki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me affixed to each generation is a reflection of the type of lives individuals are living. The young generation today in South Korea is referred to as “N-po” generation, which essentially describes this particular population’s tendency to feel compelled to give up their dreams – whether that be of relationships, marriage, child-rearing, home ownership, employment to name a few.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in Korea face harsh realities due to problems of social structure such as competitive job market, prevalence of irregular work and deepening inequality which lead to this trend of giving up.

Despite the seriousness, this issue facing young Koreans today has neither been thoroughly nor comprehensively examined in academia. Consequently, this young generation in its entirety is prematurely assumed as the ‘giving-up generation’ or the process of giving up is

simply explained with the sole emphasis on socioeconomic background. So far, a thorough analysis into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ir 'giving-up' has been neglected due in part to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asurements, which are far too simplistic to address the variation involved in the subject matter.

On this account, this study has inquired into the various types of giving-up that exist in the young Korean population us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as well as examined the roles of subjective class and subjective social mobility in determining each type, using data from 2016 Korean Youth Values Surv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ur distinct types of giving-up - that is, anxious type (27.36%), realist type (19.92%), desperate type (13.24%), and delaying type (8.70%). Individuals that do not give up also account for 30.77% of the sample. Second, subjective clas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ing factor of all types except for the delaying style, while subjective social mobility influenced all but the anxious type. Finally, for the realist and the desperate types, both subjective class and subjective social mo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ough the latter appeared to have greater influence than the former. This implies that subjective social mobility, a factor that had been greatly overlooked, may in fact be a critical component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today.

Keywords : *Korean youths, Generation, Variation in giving up, Subjective class, Subjective social mobility, LCA*

Student Number : 2015-22289